

사회

광주·전남 지역 응급의료센터·의료기관

‘시설·인력’ 전국 최하위

광주 의료센터 25%만 법정기준 충족

광주·전남지역의 응급진료를 담당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들의 시설과 인력 등의 법정 기준 충족률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452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313곳 중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모두 채운 곳이 144곳(46%)에 불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은 기준의 규모에서 차이가 난다. 응급실 병상 수의 경우 응급의료센터는 20개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응급의료기관은 10개 이상이어야 한다. 응급실 인력은 ▲응급센터-응급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 포함 전담의사 4인 이상 ▲응급의료기관-전담의사 2인 이상, 장비 기준은 ▲응급센터-CT 등 보유 ▲응급의료기관-X선 촬영기 이상 보유 등이다.

하지만 광주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법정 충족률이, 전남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충족률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였다.

광주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4곳 가운데 1곳만이 법정 기준을 충족(25%)했으며, 응급의료기관도 충족률이 45%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전남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40곳 중 11개만이 법정 기준을 충족(27.5%)해 최하위를, 응급의료센터 충족률도 42.9%로 꼴찌인 광주에 이어 15위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충족률이 100%인 곳은 서울·부산·인천·대전·울산·강원·제주 등 7곳이다. 또 지역응급의료기관 가운데 충족률이 높은 곳은 제주(100%)·부산(88.5%)·울산(85.7%)·대전(75%)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기준 충족률이 가장 저조한 분야는 ‘인력 항목’으로, 평균 충족률이 59%에 불과했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47%에 그쳤다.

■ 2011 시도별 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 충족률 (단위:개수, ()는 충족률:%)

Table with 3 columns: 구분, 응급센터, 응급기관. Rows include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각각 94%와 87%로 비교적 높았으나, 4개 전문응급의료센터와 313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각각 50%와 46%에 그쳤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군산 400mm ‘물폭탄’

상가·주택 100여채 침수...17일까지 오락가락 비

13일 광주·전남지역에는 무더위를 식혀주는 단비가, 전북 군산 등에는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다. 기상청은 오는 17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지리산(성삼재) 71mm를 최고로 영광 64mm, 화순 56mm, 담양 46.5mm, 곡성 44mm, 구례 39.5mm, 순천 39mm, 광주 37mm 등이다. 목포와 여수는 각각 7.2mm, 0.7mm가 내렸다.

반면 전북지역의 강수량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군산산단 444mm를 정점으로 군산 273mm, 익산(여산) 229mm, 부안 145.5mm, 장수 144.5mm, 전주 121mm를 기록했다.

특히 군산 내초동에는 시간당 137mm의 비가 쏟아져 상가와 주택 100여채가 침수되고 절개지 13곳이 무너져

내렸으며 차량 등 침수피해가 속출하면서 주민 수백여명이 대피했다. 또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 인근 야산에서 산사태가 나 비탈면 100㎡가 무너져 차량 10대가 파손됐으며, 군산 대야면에서는 담 1만5000여마리가 폐사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서풍을 타고 전북으로 유입되면서 군산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비는 14~1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오는 16일까지 광주·전남에는 곳에 따라 35~1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13호 태풍 카이탁(KAITAK)이 13일 오전 9시께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해 북서진 중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활짝 핀 백일홍

비가 내린 13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김용학 가족 앞에 만개한 백일홍이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51분 해질 19시 22분 달돋이 02시 21분 달질 16시 48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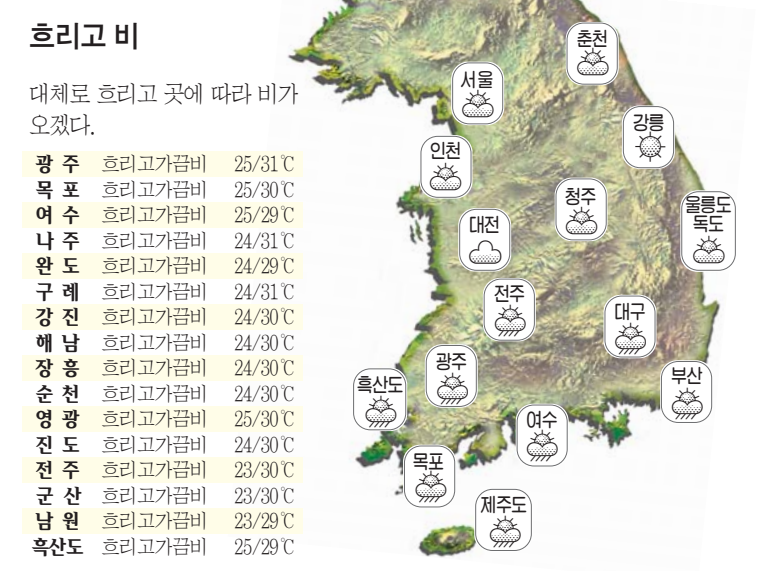


Table with 4 columns: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Rows include 서해 남부 앞바다, 남해 서부 앞바다, (오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남해 서부 앞바다.

Table with 2 columns: 날씨, 최저/최고. Rows include 15(수),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중·고생 ‘독도 과거시험’ 장원 뽑는다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독도의 역사·자연 등을 묻는 ‘독도 과거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동북아역사재단, 국토지리학회 등과 공동으로 내달 8일 서울에서 ‘독도 과거대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이달 25일에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지정한 시험장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별로 나눠 지역 예선이 치러진다. 지역 예선에서는 독도의 역사, 자연, 독도를 지킨 사람들, 독도를 둘러싼 국제법적 문제 등을 묻는 선다형 30문항이 출제된다. 문제는 교과부가 학교에 배포한 독도관련 부교재와 교육과정에 있는 독도관련 내용, 독도전시회에서 소개된 내용, 관련 서적 등에서 출제된다. 최고점자는 ‘장원’으로 뽑아 교과부 장관상을 주고 감과 5명, 을과 10명, 병과 17명 등 중학교부와 고교생부 각 33명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연희스

전남대 의대 의학박물관 21일 개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은 한 세기의 호남 의료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의학박물관을 오는 21일 개관한다. 전남대의대는 전남대병원 개원 102주년과 전남대의대 개교 68주년을 맞아 전남대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의대 의학관을 개축해 의학박물관으로 개조했다고 13일 밝혔다. 의학관은 지난 1951년 한국전쟁 중 완공됐으며 전남대 초대 총장 집무실과 대학본부로도 사용됐던 근대문화유산 중 하나다. 이번엔 문을 여는 의학박물관에는 교육연구 기자재(140점), 진료장비(330점), 도서(150점), 사진(65점), 기타 관련자료 등 모두 1000여점이 전시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보양식 원산지 표시 위반 대거 적발

농관원 전남지원 83곳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기를 끈 보양식 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온 도내 식당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장병수)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유명관광지와 해수욕장 주변 축산물판매장, 보양식 전문 식당을 대상으로 육류, 쌀, 감자 등의 원산지 표시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기하지 않은 83곳을 적발했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43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1개소와 소고기 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9개소는 9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광주 광산구의 D 갈낙탕 전문 체인 식당은 호주산 쇠고기 2.7t(2700만 원 상당)을 한우로 속여 조리,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시 금당지구의 Y 식당은 호주산 쇠고기와 국내산 헛소고기 등 총 6t(6000만 원 상당)으로 조리한 설렁탕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학생·학부모용 간편 인증서 발급

초·중·고 ‘나이스’ 사용 쉬워진다

사용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의 인증 방식이 간편하게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르면 10월께 인터넷으로 즉석 발급되는 학생·학부모용 자체 인증서를 나이스에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의 나이스는 성적 등 학생정보를 보려면 초·중·고생과 학부모가 은행 공인인증서를 받고 본인 확인을 해야 했다. 지난해 교과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학부모 3천300명에게 설문한

결과에서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수(28%)가 나이스의 문제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불편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나이스 웹사이트에 인증서 발급창을 신설해 학생은 여기에 주민등록번호·이름·학교명 등 학적을 입력하면 어디서든 새 인증서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학부모도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신원 확인만 하면 원격으로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인증서는 나이스 전용이어서 은행 등에서 쓸 수는 없다. /연희스

Large advertisement for the 49th Gyeongju Grand Film Festival. Features a large trophy image, the festival title in stylized Korean characters, dates (2012.8.14-18), and a list of activities including a dinner, red carpet, and opening ceremony.